지역의 품격을 담는 문화 소식지
월간 옥천문화 9월

옥천문화원 | 7호 | (043)733-5588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 35[29039] | 옥천문화원.kr

어린이들의 고운 노랫소리로 가을 물들인

'18회 옥천 짝짜꿍 전국 동요제' 성황리 개최

어린이들의 고운 노랫소리로 가을을 물들인 '18회 옥천 짝짜꿍 전국 동요제'가 지난 9월 18일 오후 1시 관성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옥천문화원과 정순철기념사업회가 주최 · 주관하고 옥천군과 옥천교육지원청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정순철 선생의 동심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본선 무대에는 엄격한 예선을 통과한 전국 14개 중창단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전문 작곡가진(김경은 · 박경린 · 윤학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 끝에, 대상의 영예는 '숨바꼭질'을 부른 푸른하늘 은하수 중창단에게 돌아갔다.

▲18일 관성회관 대강당에서 펼쳐진 '18회 옥천 짝짜꿍 전국 동요제' 단체 기념 촬영

경연과 함께 박문수 마술사의 화려한 특별 마술 공연도 펼쳐져 현장을 찾은 지역 주민과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더했다.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함께한 이번 동요제는 어린이들의 고운 노랫소리 속에서 가을의 문을 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옥천문화원, 백두산 역사·문화탐방 성료…

회원 화합과 역사관 확립 다져

옥천문화원이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김대훈 원장과 문화원 회원들이 함께한 '백두산 역사 · 문화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탐방은 지역 문화를 이끄는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족의 역사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회원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탐방단은 백두산의 웅장한 자연 경관과 더불어 만주 일대에 서려 있는 발해의 역사적 흔적, 일제강점기 치열했던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차례로 답사했다. 회원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민족의 정기를 확인하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했다.

특히 김대훈 원장을 비롯한 참여 회원들은 역사 현장에서 얻은 소중한 영감과 깊어진 유대감을 바탕으로, 이를 옥천의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자는 데 뜻을 모았다.

옥천문화원 김대훈원장과 회원들(연변조선족자치주의 용정시 '일송정'에서)▲

옥천문화원·옥천버스

지역 문화 발전 및교통 편의 증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김대훈문화원장과 정상영옥천버스운송대표 업무협약(mou) 체결식)

옥천문화원과 옥천버스가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와 군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옥천문화원은 지난 14일 옥천버스 측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원은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축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옥천버스는 지역 문화 행사를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힘을 보태게 된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기관 간의 교류를 넘어,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상생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천문화원, 관성회관 진입부 노후 분수대 새단장… "오염 및 미관 저해 요소 말끔히 해소"

옥천문화원이 관성회관 오시는 입구 쪽에 경관시설물로 설치했던 분수대를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후화로 인한 오염 문제와 미관을 해치던 요인들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 새 조성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쾌적하고 산뜻한 경관을 되찾으며, 군민들이 애용하는 공공건물인 관성회관의 첫인상과 주변 환경이 한층 개선 됐다.

옥천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관리와 정비를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관성회관 초입에 분수대(변경전) ——→ (변경후)

옥천문화원, 관성회관 안전도 정밀 평가 실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 확보"

옥천군민들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공공건물인 관성회관에 대해 옥천문화원이 지난 10일 안전도 평가를 실시했다.

1989년에 건립되어 현재의 강화된 건축 법적 기준과는 적용 요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도 평가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전문 안전진단 전문가와 문화원 및 관련 담당 주무관이 직접 동참해 시설 전반의 구조적 안전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옥천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른 아침, 예초기 소리로 열린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이른 아침부터 관성회관 야외공연장에 힘찬 예초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즐겨 찾는 야외공연장 주변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정비하기 위해 김대훈 원장이 직접 예초기를 짊어지고 현장에 나선 것이다.

이른 시각부터 이어진 작업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무성하게 자라나 미관을 해치던 잡목과 풀들이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치며 말끔하게 정돈되었다.

주민들이 언제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아와 편하게 쉬어가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관성회관 야외공연장은 한층 더 환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주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옥천문화원 야외공연장 제초 작업중인 김대훈원장▲

서귀포문화원,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새로운 100년 다짐

서귀포문화원(원장 양병식)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문화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문화원이 주최 · 주관 한 이번 행사는 지난 30년간 서귀포 향토문화의 발굴 · 보존과 문화예술교육을 이끌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미래 100년의 방향을 그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에서는 '탐라순력도 · 문화 학교 배출 예술인전' 특별전시가 열려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17일 파크선샤인제주에서 열린 '서귀포문화포럼'과 기념식에서는 『서귀포문화원 30년사』 출판기념회가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어 18일 서복공원에서는 풍물길트기와 제주 전통혼례 재현, 초청 가수 문희경의 공연 등 풍성한 '서귀포 문화제'와 부대행사가 펼쳐져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양병식 서귀포문화원장이 서귀포문화원 30주년 기념포럼 개회사를 하고 있다.(서귀포문화원 사진제공)

▲서귀포문화원 30주년 기념포럼

옥천소방서, 9월 11일
'군민과 함께하는 소방음악회' 개최

옥천소방서가 오는 9월 11일(금) 저녁 6시 20분, 옥천문화원 (관성회관)에서 '가을의 문턱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소방 음악회'를 개최한다. 옥천소방서가 주최하고 옥천소방서발전위원회가 주관하며 옥천문화원과 옥천군의용소방대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는 안전 문화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생명존중 문화를 홍보하고 군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기 악대장이 이끄는 충북소방악대의 웅장한 연주를 시작으로 라샤벨리댄스 무용단의 공연, 가수 엄지와 노수영의 축하 무대가 이어진다. 또한 영동소방서 박창은 소방교와 충북소방본부 김동현 소방위의 통기타 공연, 안남의용소방대 유은미 대원의 노래 무대 등 소방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진다.

현장에서는 내빈 소개와 함께 관객 참여 경품 추첨 이벤트가 진행되어 TV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됐다.

▲군민과 함께한 소방음악회 현장

가을밤의 낭만…
4회 '돗자리 치맥 콘서트' 옥천관성회관서 성황리 개최

음악과 낭만이 어우러진 '4회 돗자리 치맥 콘서트'가 지난 19일 오후 6시 옥천관성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충북민예총 옥천지부가 주최하고 옥천군, 옥천문화원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대전부르스 창작 가요제 대상 수상팀인 '밴드 하는걸로'와 완전체 풀밴드로 출연한 스페셜 게스트 '이브(EVE)'를 비롯해 DM밴드, 이예진, 김동하 & 신현우 등이 무대를 채웠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을 위해 돗자리를 지참한 선착순 100명에게 치킨 1마리와 맥주 2잔이 무료로 제공됐다. 특히 올해는 전국의 라이더 크루들을 위해 관광 돗자리, 치킨, 무알콜맥주 제공을 비롯해 행사 후 캠프장소 및 가든파티 참여, 익일 라이더 코스 안내 등 특별 혜택도 함께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가을밤을 수놓은 '4회 돗자리 치맥콘서트'

옥천향토사연구회
'옥천의 역원제와 도로체계' 학술세미나 성황리 개최

(사)옥천향토사연구회가 주관한 '옥천의 역원제와 도로체계' 학술세미나가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옥천문화원 문화교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학술발표를 비롯해 세미나 자료집 제작 및 배포 등의 사업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황건하 옥천향토사연구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엄기석 공주교대 교수가 '조선시대의 교통로와 옥천', 양정현 순천대 교수가 '조선시대 옥천의 도로체계 기록과 공간적 재현', 이안재 옥천 향토전시관장이 '기록과 전승으로 엮는 옥천역원과 여울길'을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임준묵 한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진영 전 회장, 신동호 전 한밭대 교수, 이정림 회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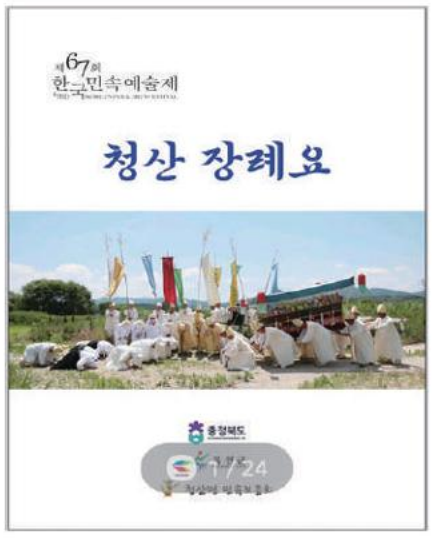
▲옥천문화원 문화교실에서 옥천향토사연구회가 주관한 '옥천의 역원제와 도로체계' 학술세미나(옥천향토사연구회제공)

옥천군 청산면 민속보존회,
6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서 '청산장례요'로 감동의 무대 선사

옥천군 청산면 민속보존회가 충청북도 대표로 전국 무대에 올라 우리 조상들의 깊은 삶과 철학이 담긴 전통 소리를 성공적으로 펼쳐 보였다.

청산면 민속보존회(회장 김기화)는 지난 2026년 9월 19일(토)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민체육공원에서 열린 6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해 '옥천군청산장례요'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옥천군청산장례요'는 보청천의 맑은 물길을 따라 대대로 이어져 온 소리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떠나는 이들을 정성껏 배웅하던 선조들의 넋을 기리는 작품이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해학과 흥이 녹아 있으며, 애달픈 통곡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다지던 공동체적 연대의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다.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 청산산례요(청산민속보존회사진제공)▲

'아이스커피마저 따뜻했던 곳'…
일본 학생이 쓴 옥천 수필, 도쿄서 우수상

- 일본지용제 교류 인연… 39회 지용제 초대로 옥천 찾은 가시모토 라나 씨
- 도쿄한국문화원 작문대회 237명 중 2위… 10월 도쿄 시부야서 대형 판넬 전시

일본에서 열려온 '일본지용제'를 통해 옥천문화원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오던 임현수 교수와 그 제자들이 도쿄 한복판에서 옥천의 정을 알리는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

지난 5월 옥천문화원의 초대로 '39회 지용제'에 참석했던 일본 대학생 가시모토 라나 씨가 도쿄한국문화원 주최 작문대회에서 237명 중 2등 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작 '얼음 가득한 아이스커피마저 따뜻했던 곳 – 내가 추천하는 여행지, 옥천'에는 방문 당시 맛있는 식사를 챙겨준 김수영 부원장과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선물해 준 지역 서예가 등 옥천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정겨운 인심이 담겼다.

이번 수상작은 오는 10월 한글날을 전후해 2주간 일본 도쿄의 번화가인 시부야 한복판에 대형 판넬로 전시될 예정이다.

임현수 교수는 "오랜 교류와 옥천문화원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좋은 에세이가 탄생해 옥천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를 전했고, 옥천문화원 측 역시 "지속적인 민간 문화교류가 도쿄 한복판에서 빛을 발해 가슴 뿌듯하다"며 기쁨을 나눴다.

3회 옥천전국연극제 개최…
10월 1일부터 5일간 가을 무대 물들인다

'3회 옥천전국연극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옥천문화예술회관과 옥천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옥천군이 주최하고 옹알스 외 19개 단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 연령(일부 제외) 관람 무료로 진행된다. 예매는 9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이번 연극제는 예술회관의 개·폐막작과 '베를린 천사의 일기', 생활체육관의 공모작(최강커플, 적의 화장법 등), 야외마당의 뮤지컬(달다방, 더 클라운 등)이 다채롭게 무대에 오른다. 또한 공설운동장 일원에서는 '신 심청전', '헨젤과 그레텔' 등의 인형극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옥천문화예술회관 앞마당과 느티나무 공원에서는 각각 사회적경제박람회와 플리마켓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3회 옥천연극제 포스터(옥천군청제공)▲

15회 2026 전국 탄금대 우리소리 경창대회 개최

10월 27일 충주음악창작소 뮤지트홀… 참가자 모집 진행 중

중원문화의 발상지 충주에서 전통 국악의 진수를 선보일 '15회 2026 전국 탄금대 우리소리 경창대회'가 오는 10월 27일(화) 오후 1시 30분 충주음악창작소 뮤지트홀에서 열린다. 충주문화원이 주최하고 충주시, 한국문화원연합회, (재)충주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한다.

참가 부문은 경기·서도·남도 민요, 판소리, 시조 등 우리소리 전반이며, 전국 대학생 및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10월 14일(수)까지 충주문화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예선 없이 본선 경연으로 치러지며, 대상(충주시장상) 상금 200만 원을 비롯해 총 5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루어진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참신한 국악 인재를 발굴하는 이번 대회에 전국의 많은 소리꾼들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우리소리 경창대회리플렛(충주문화원홈페이지제공)▲

옥천 문화 월보 · 쉬어가는 역사 퀴즈

우리 고장 옥천의 깊은 역사와 문화유산 속으로 떠나는 인문학 산책

01 관산성 유적지 유물을 통해 옥천 지역이 주로 어느 두 왕국의 접경지였음을 알 수 있을까요?

㉠ 고구려·백제 ㉡ 신라·백제 ㉢ 신라·고구려 ㉣ 가야·신라

02 통일신라 시대 옥천 지역은 '고시산군'이라 불렸습니다. 현재의 어느 행정구역에 해당할까요?

㉠ 군(郡) ㉡ 현(縣) ㉢ 주(州) ㉣ 읍(邑)

03 고려 충선왕 5년에 옥천의 지명을 승격시켰는데, 당시 무엇이라불렀나요? ( )

04 1919년 3·1 만세 운동 당시 옥천읍에서 크게 일어났던 주요 만세 운동 장소는?

㉠ 구읍 시장 ㉡ 관산성 입구 ㉢ 옥천향교 ㉣ 옥천군청

05 옥천을 관통하며 자연경관과 역사의 흐름을 함께 하는 옥천의 큰 젖줄인 강은? ( )

06 마의태자 이야기가 전해지며, 옥천 용암사에 위치한 고려시대 의 마애불 문화유산은? ( )

07 임진왜란 당시 후율정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다 의병을 일으켜 청주성 탈환 등 큰 공을 세운 의병장은?

( )

08 옥천읍 교동리에 있는 조선 후기~근대 지역 양반 가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대표 한옥은?

㉠ 육영수여사 생가 ㉡ 정지용생가 ㉢ 옥천향교 ㉣ 죽향초 구교사

09 삼청리에 위치하며 신라 말 창건, 2002년 보물 제1338호로 지정된 석탑이 있는 사찰은?

( )

10 청산면 한곡리에서 탐관오리의 수탈에 맞서 봉기했던 대규모 농민 항쟁은 무엇일까요?

( )

📌 **정답 및 향토 해설**

01. ㉡신라·백제 (관산성 전투 요충지)
02. ㉠군(郡)
03. 옥주(옥천)
04. ㉠구읍 시장
05. 금강(金江)
06. 옥천 용암사 마애여래입상
07. 중봉 조헌
08. ㉠ 육영수여사 생가
09. 용암사 (삼층석탑)
10. 동학농민혁명

* 본 페이지는 옥천 문화·역사 홍보를 위해 제작된 월보 수록용 퀴즈 코너입니다.

추석이 오면...

내 고향은 산골마을이다. 평소 마을에는 열 명 남짓한 사람들이 살아간다. 사람도 많지 않고 자동차가 오가는 일도 흔치않다. 골목길은 조용하고, 해가 지면 마을은 금세 어두워진다. 가끔 들려오는 이웃의 목소리와 산새 소리가 마을의 적막을 깨울 뿐이다.

그런 고향이 추석만 되면 달라진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고향을 떠나 도회지에서 살아가던 자녀들이 하나둘 찾아온다. 손주들을 데리고, 양손에는 과일이며 고기며 선물 꾸러미를 들고 온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닌다. 조용하던 마을에 자동차가 들어오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니 마을이 좁게 느껴질 정도다. 어른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들린다. 그때만큼은 고향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다.

하지만 명절이 끝나면 하나둘 떠나간다. 자동차가 빠져나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멀어진다. 다시 마을에는 몇 사람만 남는다. 어제까지 북적이던 집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조용해진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의 고향 모습인지도 모른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명절이 기다려졌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내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지금 아이들은 그때보다 훨씬 풍족한 세상을 살아간다. 굳이 고향에 오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래도 나는 고향의 명절을 오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추석이 오면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고, 빈집에 불이 켜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명절이 끝나면 다시 조용해지더라도 고향은 떠나간 사람들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고향의 빈 골목에는 한동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소리를 품은 채 산골마을은 또 한 해를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다시 돌아올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편집위원/천기석]

차례와 제사를 이어온 집 - 정씨네 백년의 발자취

충북 옥천군 소정리에는 백여년에 걸쳐 그 자리에 머문 터줏대감 정씨네는 명절 때만 되면 족히 20명쯤 되는 남자들이 병풍을 중심으로 안방 양개문을 활짝 열어 젖혀 대청마루까지 발 디딜 틈 없이 쭉 늘어 서 있으면, 아주 장관이었다. 집안의 장자이신 큰아버지의 "모두 절들해"하면 맨 앞줄 어른들부터 맨 뒷줄 어린 조카들까지 3번에 나눠 절을 했다. 이렇게 반복하기를 4번 정도하면 드디어 "하세".. 약 30~40분의 차례가 마무리 되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집안 며느리들의 시간이다. 대가족인 정씨네는 한상에 모두 자리할 수 없기에 돌림자 순서대로 상을 차렸다. 맨 윗줄 규자, 중간 회자, 끄트머리 영자돌림 순으로 자리하고 나면 하나 둘 음식이 차려졌다. 간단한 음복과 제삿밥을 후다닥 먹고 일어나면 이제서야 집안 며느리들의 식사 시작이다. 옥천 5일장마냥 정신이 하나도 없을 법한대도 순서나 일처리가 정확하게 맞아들어 간다. 이런저런 여자들의 수다와 함께 식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설거지 시작.. 성묘갔다 오는 남자들 점심상 끝나면 다시 여자들 식사... 순전히 여자들의 손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차례나 제사, 대가족 정씨네집도 큰 며느리들이 고령이 되고, 어린 며느리들이 시집오면서부터 제사 규모를 줄이다 지금은 설날 차례 하나만 지낸다. 시대가 변하며 안방과 대청마루를 가득 채우던 남자들도, 주방의 시끌벅적한 여자들의 음식하는 냄새도 이제는 아득한 기억 저편으로 잦아들었다. 병풍 너머로 울리던 큰아버지의 묵직한 "하세" 소리 뒤편에는, 묵묵히 밥상을 차려내고 찬물에 손을 적시던 어머니와 며느리들의 붉어진 손마디가 백 년 세월 동안 함께 배어 있었다.

[편집위원/정회원]

옥천 청산면 문화사 산책 - 세시풍속과 명절

철 따라 흐르는 청산의 바람길을 걸으며, 문득 발길을 멈추고 살포시 주위를 둘러봅니다.

충북 옥천군 청산면은 예로부터 맑은 물과 수려한 산세로 이름 높은 곳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대대로 이어져 온 세시풍속과 명절의 풍경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청산면의 사계절 산책길은 늘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숨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년 정월 대보름이 찾아오면 청산의 마을들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이 한데 모여 지신밟기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해질녘 동산에 올라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풍요를 염원하던 모습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공동체의 역사였습니다. 한여름 백중날에는 고된 농사일을 잠시 내려놓고 머슴을 위로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던 상생의 미덕이 산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듯 아련합니다.

특히 추석, 설 명절이 되면 청산면의 산책로는 고향을 찾은 이들의 활기찬 발걸음으로 가득 찹니다. 보청천을 따라 걷는 길에는 객지에서 돌아온 자식들을 맞이하는 부모의 따뜻한 웃음꽃 넘치는 미소가 멈추지 않고, 집집마다 피어오는 명절 음식 냄새는 온 동네를 푸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청산면이 가진 세시풍속의 가치는 퇴색되지 않았습디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이웃과 정을 나누던 명절의 온기가 오늘날 우리가 걷는 청산의 길 위에 그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옛것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는 청산면의 산책길은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고향의 정겨움과 마음의 평온을 선물하는 가장 소중한 쉼터입니다.

[편집위원/김억수]

바다를 건너온 한 사람, 조선을 만나다

-21회 류승규 문학상 수상작, 이재인 『귀츨라프』 -

지난 5일 소설가 류승규기념사업회는 21회 류승규 문학상에 원로 소설가 이재인의 중편소설 『귀츨라프』(태학사, 2025)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 작품은 1832년 조선 땅을 밟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카를 귀츨라프의 여정을 바탕으로, 역사와 상상력이 교차하는 서사의 공간을 펼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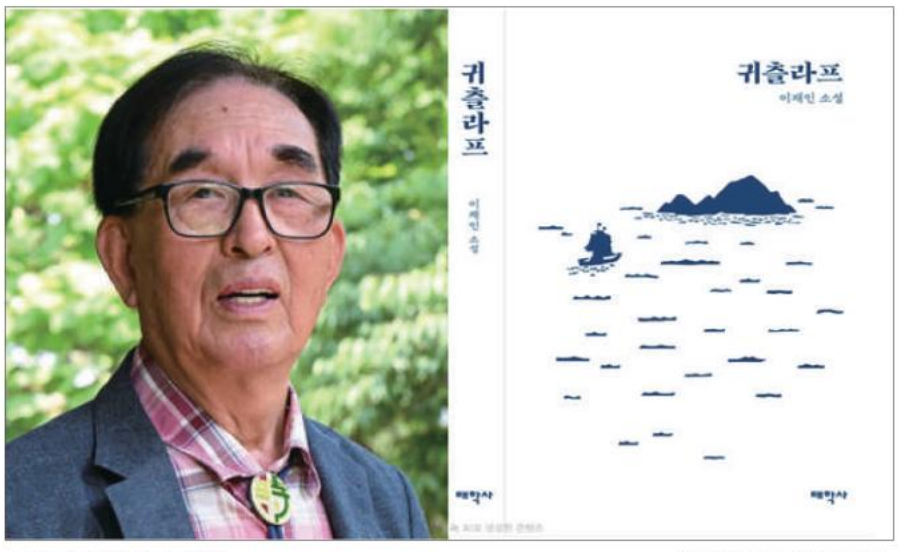
이 작가는 1946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1970년대 문단에 등장한 이후, 한국 현대문학의 한 축을 묵직하게 지켜온 작가다. 지금은 고향에 정착해 '한국문인인장박물관'을 세우고, 농사를 지으며 글을 쓰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서사처럼 읽힌다.

이재인 작가는 이 소설에서 거창한 역사적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대신 한 인간의 시선과 태도를 통해,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는 가장 작은 순간들을 포착한다. 그는 서문에서 "귀츨라프의 인간적 순수함과 신앙적 거룩함, 그리고 조선 땅을 스쳐 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그리고자 했다"고 밝힌다.

『귀츨라프』는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 울림은 오늘에 닿아 있다. 낯선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다름과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 물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바다는 여전히 넓고, 세계는 여전히 낯설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다시 길을 나설 것이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언젠가 또 하나의 이야기로 남을 것이다.

[편집위원/김묘순]



▲사진1 이재인 소설가

사진2 귀츨라프 표지▲

제51회 중봉충렬제 기념

제1회 전국 중봉정신선양 나라사랑 웅변(말하기)대회

조헌 선생의 충절과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1회 전국 중봉정신선양 나라사랑 웅변(말하기)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7일(토)

옥천문화원 야외공연장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 35)
※ 우천시 : 관성회관

참가대상 전국 유치부 · 초등부 · 중·고등부

발표주제
- 내가 생각하는 중봉 조헌 선생의 정신
- 나라사랑과 공동체 정신
- 역사 속 위인을 통해 배우는 교훈
- 내가 실천하는 애국정신

접수기간 2026년 8월 1일 ~ 9월 30일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옥천문화원 홈페이지)
- 이메일 접수(ocmhw@hanmail.net)

문 의 옥천문화원 사무국 ☎ 043-733-5588
대한웅변인협회 충북본부 ☎ 010-3424-6404

• 주 최 | 옥천문화원 • 주 관 | 대한웅변인협회 Korean Orators Association • 후 원 |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중봉충렬제 51주년 기념음악회

가을밤 희망 음악회

Autumn Concert

2026.10.16.(금) 18:00시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 경품추첨
- 기념품 증정 (400명)
- 푸짐한 음식제공

옥천문화원

상상을 현실로!
주식회사 세상을 그리다

행사문의 043-731-9789

(주) 태광설계공사

대표이사 석 대 열

대표 문의
010-5406-2615

토목 · 안전 · 영향평가 전문

설계부터 조사·진단까지 원스톱

- 엔지니어링사업 — 토목설계 · 감리
- 안전진단 — 교량 및 터널 · 수리시설
- 교통영향평가 — 대행기관
- 방재관리대책
- 지하안전영향평가 — 평가기관
- 지하수개발 / 영향조사 — 기관
- 공공측량업 / 지반조사
- 지반싱크홀조사

옥천군 옥천읍 문정2길 3-1
(문정리 447-12) · TEL 043-731-7400 · FAX 043-731-3475
E-mail oktosdy@naver.com

상담 및 문의
010-5406-2615

월간 옥천문화

발 행 인 | 김대훈 원장
편집 · 집필위원 | 김묘순 위원장, 천기석 위원, 김억수 위원, 정회원 위원
간 사 | 옥천문화원 이성욱 과장
창 간 일 | 2026년 3월 25일
발 행 처 | 옥천문화원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35
대표전화 043)733-5588 팩 스 043)733-8004

※월간옥천문화는 옥천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